

(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5면)

소규모 노후주택 수리 보조금 지원을



▲박지효 의원
(거여1동·문정1
동·가락2동)은
관내 소규모 노
후 공동주택의
주거환경 개선
과 안전 확보를
위한 보조금 지
원 체계 마련을

촉구했다.

박 의원은 "2026년 7월 기준 송파구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8886건에 달하지만,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달리 다세대·연립주택은 공용시설 유지·보수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"고 전달했다.

박 의원은 "서울시 10개 자치구는 이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통해 옥상 방수, 외벽 보수, 노후 승강기 교체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을 제공하고

있다"며 "반면 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 주민들이 공용부분 수리비 전체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"이라고 지적했다.

또한 현행 서울시 구조보강 사업에 대해 "D, E등급 판정 및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주민 생활에 직접 연계된 옥상 누수나 노후 엘리베이터 수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한계가 크다"고 설명했다.

이에 박 의원은 "주거 형태에 따라 안전과 삶의 질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"며 조속한 시일 내에 '서울특별시 송파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'를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. 동시에 송파구에도 예산 확보와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.

끝으로 박 의원은 "소규모 노후 건축물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송파구가 든든한 우산이 되어 달라"고 밝혔다.